

떠나는 겨울 오봉산 ‘눈손님’

떠나는 겨울을 아쉬워하며 내린 눈이 산사를 포근하게 감쌌다. 입춘이 지나고 10여 일이 지난 2월17일 북한산국립공원에 자리한 양주 오봉산 석굴암에도 ‘눈손님’이 강추위와 함께 찾아왔다.

사진제공=도일스님



“비구니 스님들 기도 축원 감사드린다”

위례 상월선원 정진대중 천막결사 공양금 모아 비구니회 발전기금 보시

위례 상월선원 정진 대중들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해 정성을 보냈다. 상월선원 정진 대중들은 2월18일 전국비구니회 관 범룡사를 찾아 비구니회장 본각스님에게 비구니회 발전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정진대중 호산, 진각, 도림, 인산스님과 외호대중 해일, 효연스님이 참석했다. 이번 기금 전달은 정진 기간 동안 모은 공양금의 의미 있는 일에 회향하자는 정진 대중의 뜻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정진대중들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선원 수좌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전달식에서 호산스님은 “결사 대중 스님들이 대중공양금을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아홉 분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비구니회를 방문하게 됐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상월선원을 찾아 기도 와 축원도 해 주셔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이 생겼다. 감사드린다. 상월선원 정진을 살려 한국불교 흥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각스님도 “회장 스님께서 직접 기도, 축원해 주시는 소리를 천막 안에서 잘 들었다. 비구니 스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셔서 신심을 내고 정진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은 “전국비구니회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



위례 상월선원 정진 대중들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해 전국비구니회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도림스님, 진각스님, 호산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 해일스님, 인산스님.

린다. 상월선원에서 정진하신 정신을 사회를 위해 환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렵게 정진하셨던 만큼 상월선원 정신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 한국불교 흥흥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비구니 승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마친 정진대중과 외호대중들이 회향 1주일만인 2월14일 상월선원을 방문, 철거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회주 자승스님과 선원장 무연스님, 지객 호산스님, 재현스

님, 인산스님 등 무문관 대중 스님과 상월선원 주지 원명스님, 총도감 해일스님, 노전 환풍스님 등이 함께 했다. 스님들은 90일 동안 치열하게 정진했던 수행터를 보며 감회에 젖었다. 스님들은 또 옛 특전사 군법당 시절 산중턱에 봉안된 미륵불상을 참배했다. 스님들은 3060평 규모의 상월선원 터를 내려다보며 신도시포교 거점도량 불사가 원만하기 이뤄지길 발원했다.

자승스님은 “천막결사를 하면서 결제

때마다 방부를 들어 정진하는 수좌 스님들이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스님들이 정진할 선원과 재가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이 건립돼 수행불교의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원명스님은 “기초설계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수행과 포교에 무게를 둔 도량 불사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천통사 회주 향운스님 입적

제주 천통사 회주 정암당 향운대중사가 2월14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86세 법랍 67세. 영결식은 18일 천통사에서 천통사장으로 엄수됐다.

1935년 제주시 애월읍에서 태어난 향운스님(사진)은 1955년 범어사에서 동산



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로 일하며

1948년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관음사 중건에 힘썼다.

특히 1990년부터 92년까지 제31대 불교신문 사장을 역임했으며 이밖에도 조계종 총무원 사회 교무부장, 조계종 종회의원을 지냈다. 1980년 천통사를 창건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동국대일산병원, ‘3차병원’ 될 수 있을까



장영섭 기자의
현장에서
fuel@ibulgyo.com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일산 지역 내 최고병원으로 서고자 역량을 세웠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범산스님은 2월6일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5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건물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72병상을 갖추고 있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250병상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 기존 병원에 100병상을 추가로 늘려 1000병상 이상의 일산 최대 규모이자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의 위상을 갖추겠다”는 포부였다. 병원 앞쪽에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며 금년에 설계 및 용역을 거쳐 2023년에는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기자는 2002년 일산병원 건물이 준공될 당시를 기억한다. 그때도 목표는 1000병상이었다. 국내 병원 ‘톱4’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1700여 개에서 2700여 개 정도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곧 1000개의 병상을 갖춘다는 건 병원의 규모

와 시설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장비의 성능도 그에 갇힐 것이다. 동국대일산병원의 ‘1000병상’은 20년 가까이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꿈이기도 하다.

동국대 의료원 측은 건물 신축을 발판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승격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흔히 3차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종합병원을 가리킨다. 곧 명실상부하고 누구나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인 셈이다. 근무하는 의사들에게도 자부심이다. 그만큼 병원비도 가장 비싸다.

전국의 3차병원은 2020년 현재 42개소다. 그런데 종합병원이면 으레 3차병원일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아직 2차병원이다.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인근에 종합병원이 적지 않고 지역 내 의료 수요계층의 사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다만 기자간담회에서 동국대 이사장 범산스님은 “불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건물불사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곧 1000개의 병상을 갖춘다는 건 병원의 규모

“코로나19 고통 하루빨리 벗어나라”

구룡사 자비의쌀 5000kg 보시

서초구청 통해 저소득층 후원

서울 구룡사(주지 각성스님)는 2월13일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00kg을 전했다. 구룡사는 설날 때마다 자비의 쌀을 모연한 뒤 정월대보름에 맞춰 서초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에 전달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달 시기를 늦췄다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 전달하게 됐다. 구룡사 주지 각성스님과 총무 성륜스님은 이날 서초구청을 방문해 조은희 구청장과 권오규 주민생활국장에게 자비의쌀을 전했다.

구룡사 주지 각성스님은 “구룡사에서 설날 때마다 자비의 쌀 모연행사를 하는 것은 흥법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사회를 맑고 청정하게 정화시키는데 일



서울 구룡사는 2월13일 서초구청에서 자비의 쌀 5000kg을 후원했다. 왼쪽부터 구룡사 총무 성륜스님, 주지 각성스님, 조은희 서초구청장, 권오규 서초구청 주민생활국장.

조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한 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비의 쌀이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전달돼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사상이 널리 확산되는 것은 물론 이 인연공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Gongsim Seon Center

공심선원

공심선원은
‘세상과 함께 하는 마음의 도량’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하심하면서
정진하고 보살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공심선원

경자년 새해 아침에 여러 불자님들께 개원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분당에서 문을 여는 공심선원(共心禪院)은 우리 시대의 선지식이신 대행 선사님의 관법수행을 이어가며 현대인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함께하는’ 선원입니다.

공심선원은 바쁜 현대인들과 함께하며 ‘생활이 곧 수행’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나투신 그 뜻을 살피며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을 불자님들과 함께 찾겠습니다.

불기2564(2020)년 1월 9일

공심선원 주지 청강 합장



공심선원

검색

주소_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9-2
그린프라자 5층 공심선원
(수내역 2번출구 농협건물 다음 과일가게와 미니스톱 사이)

문의_ 031-714-5171 / 010-4615-3856

이메일_ gongsimseoncenter@naver.com

1 선과 명상 (명상전문지도사 입문과정 : 15주)

본 과정은 한국명상 지도자협회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입문과정(2급) 후 1급, 전문가, 수련감독 과정으로 이어짐

개강일 : 2020년 3월 11일 오전 11시

평일반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주말반 토요일 오후 2시

2 한국고유 전통호흡 (기자기 명상 호흡 : 3개월)

호흡수련을 통한 정신력집중 강화 및 심신건강 유도

개강일 : 3월 10일(화요일) 오후 7시

3 불교교리 (3개월)

개강일 : 3월 9일(월요일) 오전 11시

4 뜻으로 품 천수경 반야심경 (3개월)

개강일 : 3월 12일(목요일) 오전 11시

5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강사

• 공심선원주지 청강
동국대학교 외래교수(명상지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이사(선분야)
국제포교사(영어)

• 안재철 교수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동국대학교 한문아카데미 교수